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WINTER

Medical Essay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소아 청소년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동안(童顔)은 있어도 동안(童眼)은 없다.



Care & Love



강지훈 교수·가정의학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WINTER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3년 12월
편집인 이태화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T.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 04 복음의 감격에 빠지자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7 여전히 엄마의 사랑은 그립습니다. 김지숙 전도사·수영로교회

Medical Essay

- 10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 12 소아 청소년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정현 교수·소아청소년과
- 14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16 동안(童顔)은 있어도 동안(童眼)은 없다. 임재완 교수·안과

Culture & Life

- 18 계수나무 향기 가득한, 강원도의 산...계방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 22 꿈 김희자·수필가
- 25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 26 큰 덩어리 사라져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 30 병원은 가난하고 병든 이의 친구...추철인 기자·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 32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 38 포커스뷰

Donation

- 44 진료시간표
- 49 KOSin 사랑in
- 51 당신의 첫눈이고 싶습니다. 이채 시인



복음의 감격에 빠지자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때가 언제 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감격은, 완치의 선언이 아닐까요? 남아공에서 함께 생활했던 조카가 급한 연락을 보냈습니다. 검진을 했는데, 복종의 태아의 목투명대가 굵게 나왔습니다. 기형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작은 아버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임신의 축복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님께 문의를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전달했습니다.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한 집안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떨었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계를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를 반복합니다. 제한적 능력을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늘 두려움뿐인 인생이, 무엇으로 감격할 수 있을까요?

저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장기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깬 때였습니다. 말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이었고, 산자육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죽음보다 못한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암울함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육신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영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질병이 중해지자, 휴양 차 가게 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나그네이지, 종살이였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아들이면 산채로 죽여야 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만 붙들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70명이 200만명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차욕스러운 애굽 땅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 하여 내”**(행13:17)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에서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섭리적인 역사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 아픔, 상처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11:36).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증거하는 순간들입니다. 모든 역사는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하나님께로 인생을 이끄시는 시간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그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13:23절). 삶의 아픔과 실패, 상처와 고통만을 묵상하면 안됩니다. 보잘것없는 그 역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라함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26절)는데, 그 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30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33절)습니다. 시편 2편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

씀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외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34-35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칭하지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38절)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어떠한 씩음이 존재하지 않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39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분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경험한 성도가 확대된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절).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병원입니다.

복음병원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감격입니다.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경험한 자는, 복음의 감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한 존재임을 알 때, 복음에 감격하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그러한 감격으로 모인 사람들이 복음병원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복음이 됩니다. ✨



여전히 엄마의 사랑은 그립습니다.

 김지숙 전도사·수영로교회

나이 벌써 만46세, 작은 나이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많은 추억과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다. 시간의 빠름을 매 순간 느끼며 쉽지 않은 삶이지만 감사 또 감사이다. 부모의 나이가 되어 가기에 늘 부모의 사랑을 돌아본다. 현재는 부산이 나의 제2의 고향이지만 내가 태어난 고향은 여주시 면단위 시내에서 버스를 1시간은 타야 갈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어릴 적 기억은 시골에 교회가 생겼지만 윗동네라고 하는 상전동네의 한 창고에 덕석을 깔고 자그마한 나무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5살 기억이 선명하다. 초등학교 4학년 즈음 윗동네와 내가 사는 아랫동네의 사이 중간에 대옥교회가 세워졌다. 나에겐 너무 축제 같은 날들이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지만, 믿는 외가 덕분에 어머니의 신앙으로 교회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었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린나이에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과거를 돌아보면 5살부터 교회에 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셨음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간 것 같으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 교사를 시작할 즈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첫번째 터닝 포인트였다. 5살부터 교회에 가기 시작하여 중등시기 믿음이 자라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교회에 다닌 횟수가 벌써 42년차이다. 상처나 아픔 없이 교회에서의 시간들은 축복이고 넘치는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확신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5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



중1학년부터 반주자와 교회반사로 섬기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 중고등부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며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20대 초반에는 전도와 섬김으로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가득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믿지 않는 남편의 만남으로 (믿는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적 결혼관 책도 많이 보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지고지순하게 따라다니는 현 남편을 통해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을 받고 전도를 하여 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과 인연은 어머니의 소천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 직분으로 아빠의 정치 출마시절(내가 중학교 2학년, 33년전(1990년) 아버지의 정치 낙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어머니가 밤에 일을 하러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엄마가 떠오른다. 어머니의 힘든 육체의 노동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가운데 낮에는 밭일을 밤에는 닭 공장을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보였다. 한번도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다는 내색한번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늘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 같

다.(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그 때 만큼은 가사일에 최선을 다했다.) 유독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셋째인 제가 빨래, 발일을 하며 엄마를 돕고자 했던 것은 유독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부모를 공경해야하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 배웠던 시간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셨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실 때에도 어머니는 늘 머리맡에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더 신앙으로 교회에 달려가 기도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영혼과 온가족이 교회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 시키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였다. 20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며 봉사하며 가정의 위기가 회복 즈음시 가정이 안정기에 들어갈 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

옫의 고난처럼 엄마는 막내의 군입대 첫 휴가 온 날 뺑소니 음주 운전 역주행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내 나이 22살에 엄마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정은 그때부터 또 다른 아픔이 시작되었다. 아빠는 네 자녀를 위해 재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의 소천이후 3년 만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4년 후 소천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빠는 말기 암투병 중 기적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엄마가 계시는 천국에 가셨음에 감사한다.

엄마의 소천 후 나는 5년 뒤에 지금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부산을 오게 됐고 현재 결혼 21년차이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혼횟수와 같다. 여수에서 살던 26년 보다 부산에서의 21년이 더 고향 같은 곳이다. 두자녀의 엄마로 열심히 맞벌이생활을 하다 5년 전 신학이라는 길을 걸으며 현재 수영로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있다.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엄마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방향 없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이 모든 시간이 감사이다. 엄마의 신앙의 유산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청년 때 들었던 말씀에 분명 긴 터널이 지나면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찾아 올거라는 확신과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달려온 시간들이 축복이며 감사밖에 없다.

주님을 만났고 결혼 후 믿지 않는 남편과 교회에 출석했고, 두자녀를 두며 두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있다.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기도로 무장하듯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밖에 없다. 엄마가 주셨던 믿음의 유산을 더 잘 지켜 끝까지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구함으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 여전히 엄마의 사랑이 그림다.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이들을 위해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며 물질의 부요보다 높은 명예와 지위보다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즐겁고 기쁨이듯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가정되기를 기도한다. 엄마의 기도와 사랑은 바다와 같다. 그런 믿음의 엄마,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병이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30세 이상 인구 중에서 6명 중 1명 (16.7%),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 (30.1%) 꼴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당뇨병을 초기에 진단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건강관리 중 하나가 되겠다.

당뇨병의 종류

먼저 당뇨병은 여러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크게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다. 1형 당뇨병은 일종의 면역질환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급격하게 발병하며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2형 당뇨병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췌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며 진행되는 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당뇨병은 바로 이 2형 당뇨병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한국인 당뇨병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할 내용도 2형 당뇨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증상은 3다(多) 라고 하여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며,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증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혈당이 200 mg/dL 이상 상승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증상을 통해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당뇨병을 진단받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증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

먼저 정상 혈당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정상혈당은 8시간 이상 공복 시 혈장포도당 10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장포도당 140 mg/dL 미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다음 4가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당화혈색소 6.5% 이상
- 2) 8시간 이상 공복 시 혈장포도당 126 mg/dL 이상
- 3) 경구포도당내성검사 시 2시간 혈장포도당 200 mg/dL 이상
- 4)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은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포도당 200 mg/dL 이상

그렇다면 정상혈당과 당뇨병의 진단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뇨병 전단계라고 한다. 당뇨병 전단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복혈당장애: 공복혈장포도당 100-125 mg/dL
- 2) 내당능장애: 경구포도당내성검사 시 2시간 혈장포도당 140-199 mg/dL
- 3) 당화혈색소: 5.7-6.4%

당뇨병 선별 검사

그렇다면 이러한 당뇨병 검사는 언제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선별검사를 4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에서도 매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당뇨병의 가족력, 과체중 또는 비만,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동반을 의미한다. 또한 임신 중 임신 당뇨병을 진단받았던 여성은 출산 후 6-12주 후 경구포도당 검사를 시행하고,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전단계에서 2형 당뇨병의 예방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특히 당뇨병 전단계이면서 과체중 (체질량지수 BMI 23 kg/m²)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중을 5~10% 감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운동은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며, 필요에 따라 메포민과 같은 약제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당뇨병의 치료

이미 당뇨병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상혈당으로 관리할수록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체중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신병증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들까지도 개발되어 있다. 현재 총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정확한 검사들을 통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당뇨병 약제의 조합을 처방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환자들 중에는 이미 당뇨병이 진단되었는데, 약값이 혼자서 노력해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마치 세탁기가 있는데 손빨래만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 힘들게 정상혈당을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췌장기능이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뇨병 치료는 눈에 보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발전된 의학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전문진료분야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소아 청소년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그 경고(빨간불) 증상

 이정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당뇨병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장기의 소아 청소년에서 급증하는 추세라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1형당뇨병, 2형당뇨병으로 구분합니다. 과거에 1형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 시기에 주로 발병하여 ‘소아 당뇨병’이라 하였고, 2형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소아 청소년에서도 과체중과 비만의 합병증으로 2형당뇨병이 증가하고 있어, 1형과 2형당뇨병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당뇨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관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아 청소년의 1형 당뇨병 발생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공단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0~14세에서 10만 명당 4.45명(남자 4.01, 여자 4.9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2형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은 2006년 10만 명당 153.5명에서 2013년 205.0명으로 33.6% 증가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발생

률은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상반기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하반기의 발생률 추세를 1형당뇨병에서는 1.31배, 2형 당뇨병에서는 1.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혈당(혈액 내의 포도당의 농도)이 정상범위 이상으로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정상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이 인슐린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결핍되거나, 인슐린이 만들어지지만 그 작용이 감소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전자를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후자를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당뇨병 진단 시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신체 검진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당 검사를 같이하여 당뇨병이 의심되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 체중감소이나 야뇨증 같은 증상이 생겨 진단되는 경우, 케톤산혈증,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어 진단되는 증증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은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서는 아이의 성장 지표인 키, 체중 변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진행된 경우 많이 먹지만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키도 잘 안 클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많이 먹어 체중이 급증하고 초기에는 키가 잘 크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피부,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거뭇거뭇한 흑색가시세포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거나 여름철에 햇볕에 타거나 잘 씻지 않아서 그렇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흑색가시세포증으로 여학생의 경우 모발이 길면 목 부위가 감춰지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 수 있고, 그 외 부분은 옷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흑색가시세포증은 2형 당뇨병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사인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2형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체중관리가 안되는 경우 2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빨간불인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기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보호자는 아이의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된 후 치료 약물에는 1형과 2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형당뇨병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2형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

기 위해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치료 반응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은 인슐린 펌프라는 기기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검사는 손가락에서 직접 채혈하는 자가혈당검사, 피하지방에 센서를 부착하여 24시간 혈당 변화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검사가 있는데, 후자는 저혈당을 예측해 알람을 보낼 수도 있어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기기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 좋은 관리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검사와 약물 외에 영양관리, 운동관리, 사회심리적 관리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진단시에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 및 기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은 아이 혼자서 절대로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도움 뿐 아니라 학교의 도움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적 도움도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성장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춘기의 학생들은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증상의 변화를 보호자에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양육 환경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회 국가적으로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비만의 증가로 인한 당뇨병의 증가세가 계속 된다면 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비용을 더욱 상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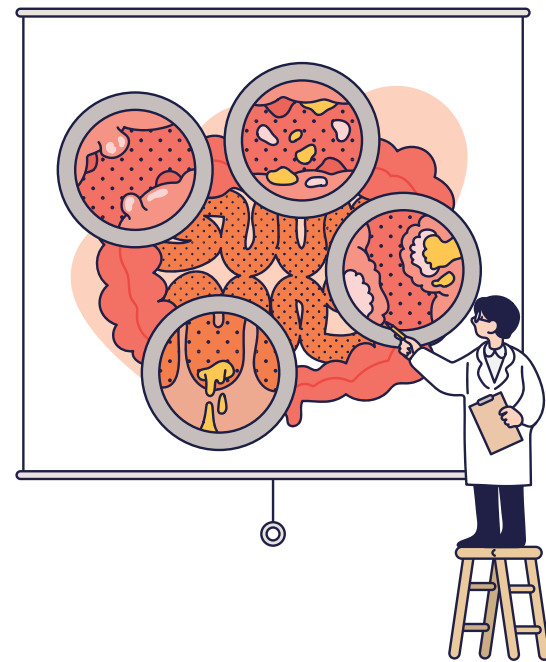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외래	외래	

대장암의 씨앗 대장 용종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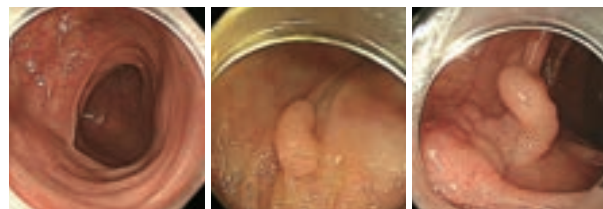
 **김재현** 교수 · 소화기내과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의 씨앗으로 알려진 대장 용종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대장 용종이란 무엇인가요?

A1. 대장 용종은 대장에 발생하는 혹을 얘기합니다. 왼쪽 그림이 정상적인 대장 사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이 용종 사진입니다. 이러한 용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고 성질이 변하게 되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장 용종이 이렇지는 않지만, 선종이나 톱니 선종은 전암성 병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Q2. 선종이나 톱니 선종이 뭔가요? 용종이란 다른 건가요?

A2. 대장 용종을 조직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하면 선종이나 톱니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선종이나 톱니 선종 모두 용종의 한 형태입니다. 선종이나 톱니 선종은 앞서 언급한대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입니다.

Q3. 대장 용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장암이 되는 건가요?

A3. 모든 용종이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종의 경우는 암이 될 수 있는데, 선종도 저등급이 있고 고등급이 있습니다. 저등급 선종이 고등급 선종이 되고, 고등급 선종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형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은 전암성 병변이 아닙니다.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어느정도 파악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용종을 제거하여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견되는 용종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대장 용종이 잘 생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A4. 체질적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혹이나 점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고, 전혀 안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육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 잘 생길 수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대장 용종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만약 선종을 제거했다면 이후에 추적검사로 계속 받아야 하나요?

A5. 선종을 제거한 후에는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종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추적검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저등급 선종이라도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3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고등급 선종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추적 검사를 하도록 미국/유럽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 후 추적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년마다 국가암 검진을 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 기간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고위험군은 2년 후/ 저위험군은 4년 후로 추적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6. 대장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천공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고,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A6. 자주 검사를 받는다고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내시경 검사 자체가 천공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 소화기내시경

센터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아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고통스런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수면 검사보다 검사받기 수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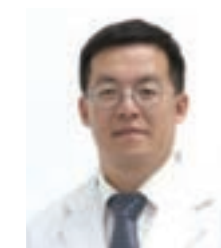
Q7. 대장내시경 전에는 꼭 장 세척제를 먹어서 속을 비워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 양이 많다보니 인체에 과연 무해한지 궁금합니다.

A7. 장 세척제 복용 후에 복부 불편감, 복통, 손발 떨림, 무기력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좋겠고,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무해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Q8. 대장내시경 말고 다른 검사를 통해 대장 용종을 발견할 수는 없나요?

A8. 대장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분변 잠혈 검사나, 대장 조영술, CT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려면 부산 경남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평이 나오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화기내시경 센터에서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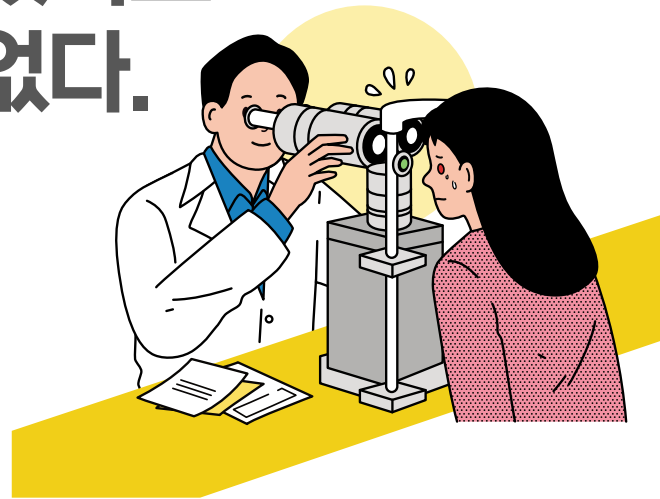


김재현 교수 | 소화기내과
전문진료분야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시술	연구	외래	시술	시술
오후	외래	시술	연구	시술	외래

동안(童顔)은 있어도 동안(童眼)은 없다.

 임재완 교수 · 안과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해운대 수목원을 찾았다.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애국가 3절이 절로 생각나는 날씨였다. 하늘은 청명해서 햇살이 곧게 내리쬐고 산이며 나무며 꽃들의 형태는 그 선명한 빛을 오롯이 반사해 그림처럼 생생한 풍경을 이루어 냈다. 이런 날에는 사물의 경계가 놀랍도록 선명해서 내가 눈이 이렇게 좋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여기서 멈추고 가을의 즐거움을 만끽하면 좋으련만, 직업병 같은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그럴 때면 오른쪽, 왼쪽 눈을 번갈아 감아보며 양쪽이 비슷한지 확인해보곤 한다. 눈이 나쁜 환자들을 늘 보다 보니 생긴 습관이었다. 오른쪽 눈 괜찮고... 왼쪽 눈도 괜찮았다. 다행이었다. 안도하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보았다. 맑고 아름다운 푸른빛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시력이 나쁜 환자들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상상을 해 본 적이 많았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일까? 아마 모두가 다를 것이다. 중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 주변이 보이지 않는 사람, 휘어져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이 깜깜한 사람, 질병에 따라 느낌이 모두 다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을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안타깝지만 분명 내가 느끼는 것만큼의 선명한 풍경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들며 침침하다고 찾아오는 노인들이 참 많다. “잔잔한 성격책 글씨까지 다 보였는데 요즘 통 안 보입니다” 풍경을 생생하게 못 느끼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걱정은 실질적이며 일상생활까지 침범해 있었다. 의학이 발전한 만큼 그리고 높아진 건강에 관한 관심만큼 많은 노인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눈에 대해서만큼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얼굴이 동안(童顔)일 수는 있어도 눈이 동안(童眼)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마흔이 넘어가면 서서히 노안(老眼)이 오고 예순이 넘어가면 백내장이 생긴다. 노안과 백내장은 그래도 수술이나 안경으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 정말 문제는 망막질환처럼 영구히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병들이다.

망막질환 중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뭘까? 단연코 노년 황반변성일 것이다. 노년 황반변성은 망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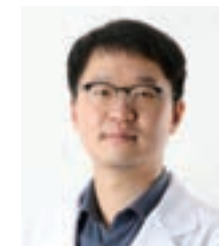
의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병으로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주로 생긴다. 황반은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곳에 손상이 발생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 중심이 까맣게 가려 보인다. 문제는 아직 황반변성의 원인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나이, 흡연이 위험인자인데 흡연은 안 할 수 있지만 나이는 안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자외선을 막기 위해 야외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루테인’과 같은 눈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레즈포몰라’는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구리,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이루어진 복합제제인데 심한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황반변성이 없는 환자에서 아레즈포몰라가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에서 황반변성이 없다면 굳이 영양제를 먹기보다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녹색 잎채소, 달걀노른자, 당근, 호박, 사과 등의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겠다.

담배도 안 피우고, 선글라스도 끼고, 눈에 좋다는 식품도 잘 먹으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눈 검사이다. 심한 황반변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중심이 가려 보이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안과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아야 한다. 심한 황반변성으로 진단되면 안구 주사로 치료받게 된다.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대부분 환자분은 몸서리칠 것이다. 하지만 안구 주사는 황반변성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안구 주사가 황반변성 자체를 없애진 못하지만, 황반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비교적 정상적인 황반구조를 유지하게 해준다.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영영 시력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황반변성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환자에게 병원은 오기 싫은 곳이다. 눈이 좀 침침해서 검사받아볼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온통 무시무시한 얘기밖에 없어서 더 꺼려진다. 그래서 좀 참을 만하면 병원에 잘 가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더 나빠지거나 지인의 건강이 안 좋다더라 얘기를 들으면 그제야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에 온다. 그것도 아니면 자녀 등에 떠밀려서 겨우 오는 식이다.

안과에 가는 걸 망설이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보는 행위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TV도 본다. 화장실에서 거울도 본다. 버스를 타고서 외출도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도 보고 햇살이 가득한 풍경도 본다. 거기서 뛰어노는 손자 손녀도 본다. 당신이 보던 세상이 더 흐릿해지면 어떨까? 혹은 더 맑아지면 어떨까? 침침함을 참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안과에 방문해보길 권한다. 



임재완 교수 | 안과
전문진료분야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계수나무 향기 가득한, 강원도의 산 계방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계방산(桂芳山)은 해발 1,577m의 높이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과 홍천군 내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오대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한자로 계수나무 계(桂)자와 꽃부리 방(芳)자를 써서 계수나무 향기가 나는 산이라고 한다. 한강기맥을 이루는 고봉 중 하나이며, 남한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주변에는 오대산 비로봉을 비롯하여 백적산 태기산 방대산 등이 솟아있다. 예전엔 계방산에서 호령봉을 거쳐 오대산 비로봉으로 가는 산행을 즐기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비법정탐방로로 통제되고 있다. 계방산 일대는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여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산 아래 <방아다리약수터>와 <이승복기념관>이 유명하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부산에서 계방산까지는 먼 길이다. 원래도 먼 길이 최근에는 더욱 멀어져버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루 두 번 진부에서 출발해 운두령에 쏘다가 내면으로 가던 버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계방산으로 가는 길은 평창군 진부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제는 KTX진부역이나 진부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는 방법이 유일하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2~3일 정도의 일정으로 비로봉이 있는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지구 탐방을 겸

하여 다녀오기를 권하고 싶다.

시간을 쪼개어 무박3일의 일정으로 다녀오는 방법도 있다. 노포터미널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강릉을 거쳐 진부로 가는 방법으로 늦어도 아침8시경이면 진부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다. 돌아올 때도 진부에서 강릉으로 가서 심야버스를 타면 된다. 이른 시간에 하산하였다면 진부역에서 KTX를 이용해 서울을 거쳐 돌아오는 방법도 가능하다.

산행의 들머리는 보통 운두령이다. 1,089m로 구름도 망설인다 하는 운두령 고개. 제법 가팔라 보이는 나무계단을 올라서면 산행이 시작된다. 신갈나무와 물푸레나무가 즐비한 능선 길을 따라 무던하게 걷는다. 운두령 2.2km 이정표가 있는 쉼터까지는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긴 해도 별 어려움 없는 산행을 할 수 있다. 시야는 나무들에 가려 거의 트이지 않는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양상한 나뭇가지 끝에 옹기종기 매달린 겨우살이를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쉼터를 지나면 계방산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라는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어쩌면 달나라에서 바라본 풍경?

고도를 바짝 올리는 구간이다. 처음엔 돌계단이 가파르게 고도를 올리다가 곧바로 나무로 된 359개의 계단이 이어진다. 오르막이라는 것 외엔 위험한 길은 아니어서 쉬다 걷기를 받



복하다보면 어느새 계단은 끝이 난다. 이어서 겨울에도 한껏 초록을 머금은 산죽 사잇길을 지나면 제법 널찍한 헬기장이 나오고, 오르막이 끝나는가 싶더니 하늘이 파랗게 다가온다. 마침내 해발 1,500m 전망대에 도착한다.

계수나무 향이 나는 산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는 전망대에 서면 그야말로 전망이 끝내준다. 멀지않은 계방산 정상 모습과 함께 사방으로 산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안내판 뒤로는 호령봉과 비로봉이, 아스라하게 설악산의 멋진 자태도 보인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생전 말아본 적 없는 계수나무의 향이 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지척에 보이는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넉넉히 1시간여 정도는 걸어야 한다.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한껏 계수나무 향기를 들이키며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한다. 삼거리 주차장으로 이어진 하산 길의 능선과 노동계곡이 내려다보이고, 더욱 세차게 물결치는 산군들의 파노라마는 가히 감동적이다.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하얗거나 잿빛으로 펼쳐진 풍경은, 어쩌면 달나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닮았을까? 계수나무가 토끼와 함께 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이니 영 거짓말은 아닐 터이다.

내려가는 길은 원점회귀로 운두령으로 돌아가는 길과, 삼거리 주차장으로 능선을 타는 길과, 노동계곡을 지나 자동차야영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어느 길로 잡으나 2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내려가야 한다. 올라올 때 능선을 탔으니 내려가는 길은 노동계곡으로 잡는다면 그야말로 눈의 계곡을 만끽할 수 있다. 계곡에 다다를 때까지 제법 경사가 있으나 아이젠과 스패츠 등 동계장비만 잘 갖추었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길이다. 설국을 만끽하며 계곡을 내려온 후 자동차야영장과 <이승복 생가>를 지나면 차가 다니는 삼거리에 도착한다.

다시 진부로 나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한다. 아주 운이 좋거나 시간을 잘 맞춘다면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부지런히 걸어가 <이승복기념관> 앞 정류소에서 진부로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다. 



꿈

 김희자 수필가

“아부지, 아부지!”

매봉산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아버지를 불렀다. 그 소리는 깊은 골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얼마나 고향을 질렸는지 그 소리에 진즉 놀란 사람은 꿈을 꾸 나였다.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니 방이었다. 방 안은 어느 때와 다를 게 없었다. 잠든 엽둥이의 숨소리가 나직나직 들리고, 조그만 등불이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등대에서 새어 나오는 글귀를 보며 배시시 웃으며 중얼댔다. '나도 이제 꽃길만 걷고 싶네.'

내가 잠들었던 곳은 고향 집 안채에 딸린 작은 방이다. 도심으로 나갔다가 사십여 년 만에 돌아와 머무는 곳이다. 작은 방이라 부르지만, 예전과는 달리 네다섯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손자, 손녀가 하나둘 늘자, 아버지는 작은방 부엌을 없애고 방을 넓혔다. 이곳은 예전에도 공부방이었다. 언니, 나, 동생들이 차례대로 물려받은 방이다. 장판을 새로 깔고 도배를 했더니 애뜻하다. 책상을 넣었더니 창작 공간이 되었다.

오래전, 아득한 꿈을 꾸던 시절이 떠올랐다. 자그마한 방에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얇은뱅이책상이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 등잔불을 켜놓고 언니한테서 한글을 배웠다. 그윽음에 코끝이 끼얹게 되는 줄도 모른 채 구구단을 외우고, 동시가 무엇인 줄 그때 알았다. 저금통이라는 동시를 지어 학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선 것도 그때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을에 전깃불이 들어오며 등잔불과 남포등이 사라졌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는 마루가 있었다. 나무판으로 끼워서 맞춘 마루청이었다. 걸레를 빨아 마루청을 닦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마루로 오르는 뿔돌 위에서 아버지의 하얀 고무신이 햇살에 반짝거렸다. 짚수세미로 싹싹 씻어서 말린 고무신은 올곧은 아버지의 자존심 같았다.

중학생이 된 나는 이 방에서 새벽녘이면 책을 펼쳤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뒷간으로 가시던 아버지는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딸 공부하나?" 그러시며 마당을 건너갔다.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달걀귀신 나올까 봐 화장실에 못 가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밤마다 마루 중간에 씻은 요강을 놓아주셨다. 작은방은 언니가 도시로 나간 후 남동생과 함께 썼다.

이불속에서 빠져나온 나는 꿈이 하도 선명하여 마당으로 나간다. 꿈을 꾸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어제의 하늘, 어제의 앞산, 어제의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듯하다. 꿈길을 따라간 곳은 선산이 있는 골이다. 그곳은 아버지를 부르며 늘 마음이 향하는 곳이다. 귀향 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늘 아버지를 찾았다.

선산이 있는 골을 바라보며 꿈의 흔적을 더듬는다. 길은 다니지 않으면 묵정길이 되고, 밭은 일구지 않으면 묵정밭이 된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 길도 그랬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묵정길이 되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원목실 추천도서

는 길이 닳여 있었다. 예전에 뽕질나게 오가던 때처럼 길이 번들거렸다. 그 길엔 맑은 개울물이 철철 흘렀다. 개울물이 어찌나 맑은지 물속에서 황금물고기가 유유했다. 나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다 잠에서 깼다.

그 길 끝엔 선산이 있다. 지금은 목정밭이 되어버렸지만, 선산 옆에는 아버지와 피붙이들이 가꾼 밭이 있었다. 어릴 적에 일구었던 밭이다. 한 평 땅도 귀했던 시절, 일꾼을 따로 들이지 않고 우리 식구가 산을 개간했다. 둘째 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로 나가 번 돈으로 마련한 밭이었다.

아버지는 산에 무성한 나무와 풀을 베어냈다. 팽이로 산을 파고 돌을 주워낸 후 터를 일구었다. 셋째 언니와 나는 돌을 주워 밭 가장자리에 모으고 베어낸 나무는 뿔감으로 쓰기 위해 집으로 날랐다.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손이 미웠다. 길은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그때는 길이 좁아 무조건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다녀야만 했다. 나무를 집으로 나르다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터를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하는 게 싫었다.

고사리손까지 보태어 일군 땅은 문전옥답이었다. 힘들게 마련한 땅이라 수확은 그만큼 값졌다. 그 밭에 보리와 고구마를 심어 수확했다. 수확물 일부는 수매했고, 나머지는 식구들의 일용한 양식이 되었다. 밭일하시던 아버지는 훗날 당신이 문철 자리를 알려주시기도 했다. 노른자위 땅은 부모님이 연로해지자 잡초로 덮였다. 밭으로 오르던 길도 밭길이 닿지 않아 풀숲으로 변했다.

목정길이 맑은 개울로 변해 흐르던 그곳. 꿈이었지만 기분 좋았다. 내가 귀향 후 꾸곤 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무슨 암시인지 얼마 후 또 꿈을 꾸었다. 이상하게도 고향에 대한 꿈을 꾸면 선명하게 남았다.

어느 날엔 마을 골목에서 솔을 걸어놓고 불을 지피는 꿈을 꿔다.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마을 골목에서였다. 솔을 엮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꿈은 널리 이름을 떨치고, 영예로움을 얻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해석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두 번째 봄을 맞던 해의 삼월에는 마을 들녘에 복사꽃이 환하게 핀 꿈을 꿔다. 복숭아나무에 꽃이 만발한 꿈은 큰 행운이 따르게 될 징조라고 했다. 예술가이면 작품을 창작 발표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될 꿈이라 해서 희망을 품었다. 예인의 길은 외롭지만, 희망 속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고향에 와서 꾸곤 모든 꿈은 내 문학의 지침서가 될 것 같다.

오랜 방랑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디 자기 안에 있으나 발굴하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 떠나는 길이 방랑이라면, 귀향은 힘들고 외로운 방랑을 거쳐 비로소 고향 집 문 앞에 서는 일이다. 긴긴 방랑을 거친 후, 닿게 되는 귀향의 의미는 본래 자아에 대한 깨달음의 은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남으로 온 까닭이다. 



잘 산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제로운 삶
유진 피터슨 지음 | 홍종락 번역 |
북있는사람 | 2022년 10월 11일

책소개

우리 시대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작가이며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수백만 명이 읽었지만, 그가 말하는 잘 사는 법에 대한 실천적 통찰과 지혜를 직접 들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유진 피터슨이 교우들에게 20년 넘게 매주 전한 목회서신 및 설교와, 목회 현장에서 썼던 미출간 원고를 모아 엮은 이 책 『잘 산다는 것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피터슨의 평생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다. 돈, 시간, 노동, 믿음, 관계, 공동체, 기도, 단순함, 예배, 안식 등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안들을 아름답고 세밀한 언어로 풀어낸다.

유진 피터슨은 평범한 삶의 비범한 영성을 알았고, 예수님처럼 살수록 실제로 더 인간다워진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 잘 산다는 것은 성체나 소유, 안락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앞길에 펼쳐진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데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33편의 짧은 묵상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사는 인생들이 소망을 품고 용기 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길, 잘 사는 길을 걷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영혼을 위한 풍성한 잔치상이다. 매일 일상에서 걸어 올린 영적 통찰을 접할 자료로서도, 목회적 지혜가 아쉬운 심령에 양분을 제공할 자료로서도 이상적이다. 이 책은 엄청난 아름다움, 실제적 어려움, 끝없는 경이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다. 개인이 소장하고 매일 읽어 나가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든,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귀하게 간직할 만한 책이다.

저자소개 | Eugene H. Peterson(1932~2018)

1932년 미국 워싱턴 주 이스트 스텐우드에서 태어나, 몬테나 주 캘리스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50년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B.A.)을 공부했고, 졸업 후 뉴욕 신학교에서 신학(S.T.B.)을 공부했다. 신학교 졸업 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켄터 연구로 석사학위(M.A.)를 받았으며, 1958년 미국 장로교단(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9년부터 뉴욕 신학교에서 성경 원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뉴욕 시 화이트 플레인스 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했다(이 시기 동안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는다). 1962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메릴랜드 주의 작은 마을 벨 에어에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시작하여 이후 29년간 목사로 섬겼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다. 2018년 10월 22일 '자, 이제 가자'(Let's go)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여든다섯의 나이로 이 땅에서의 '순례 여행'을 마쳤다. 주요 저서로는 성경을 오늘날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외에, 『물총새에 불이 붙듯』, 『일상, 부활을 살다』, 『사복음서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복 있는 사람), 『한 길 가는 순례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의 영성 시리즈』(IVP), 『유진 피터슨 목회 멘토링 시리즈』(포이에마) 등이 있다.

[출처: 교보문고]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Do it
데이비드 차 지음 | 아크 |
2023년 02월 13일

책소개

“2023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생존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는 12가지 방법. 2023 금융위기, 미중 패권전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구체적인 12가지 방법과 이기는 자가 되는 DO IT! 『DO IT 두잇』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된 라이트하우스 10차 특별기도회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총 12편의 DO IT 메시지는 생방송 동시 시청자수 4800명, 누적 조회수 200만 회의 놀라운 참여로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킨 메시지이다.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신앙성장의 길이 없을까 고민하며 DO IT이라는 12편의 메시지를 정리하게 되었다. 20대 때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나 또한 훨씬 더 빨리 이바벨론의 트랙을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맨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모든 이야기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출처: 교보문고]

저자소개 | 데이비드 차

'꿈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부르심을 받고 전임 사역자가 된 지 12년이 된 저자는, 30만 베스트셀러 '마지막 신호'와 '마지막 성도'의 저자이기도 하다. 구독자 15만 명, 누적조회수 4100만 뷰의 HOLYTUBE 라는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8년째 매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즌 3년간 10차례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통해 열방을 기도로 섬기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큰 덩어리 사라져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10년간 20cm 넘는 유방거대종양 지닌 남아공 프라미스... 고신대병원서 수술받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에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20cm 넘는 유방거대종양 수술을 받으러 온 마시시 채피소(Mashishi Tshepiso, 애칭 프라미스)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었습니다. 프라미스는 만 21세로, 12살 때 흑이 가슴 쪽에 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고신대병원에서 수술받기 전까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프라미스로부터 그동안의 삶과 고신대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오기까지 과정과 수술 후 소감 등을 김영대 원목실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또 오경승 병원장과 프라미스의 수술을 집도했던 김구상 교수로부터 수술과정과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고신대병원 의료선교팀과의 만남으로 희망을 보다

“12살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왼쪽 가슴에 흑이 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시 지역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는데, 큰 병원에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쪽의 미신적인 요소로 수술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수술받지 못했습니다.”

프라미스는 남아공 발방크(Vaalbank)에서 오빠와 자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발방크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일명 조벅)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프라미스는 15살 때 요하네스버그(조벅)한인교회(담임목사 서대경)에서 2009년 1월 세운 발방크의 그레이스펠로쉽(Grace Fellowship, 담임목사 시피소)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프라미스는 12살 때 왼쪽 가슴의 흑을 확인하고 그동안 매우 아팠지만,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진통제가 그나마 아픔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슴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두드림(Do Dream)’으로 명명한 고신대병원 의료선교팀은 2023년 8월 14일 그레이스펠로쉽교회에서 진료했습니다. 그레이스펠로쉽교회 현지인 목사가 프라미스에서 대한민국인 의사들이 들어오는데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했습니다. 이때 프라미스가 의료선교팀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팀에 함께한 김구상 교수가 프라미스에게 초음파 검사한 결과 유방암 가능성으로 진단함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남아공에서 치료받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되어 ‘고신대병원에서 수술해보자’라는 뜻이 모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선교팀과 그레이스펠로쉽교회와 조벅교회의 후원과 기도, 고신대병원의 협력으로 프라미스가 여권 발급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사촌 산드라(보호자)와 함께 10월 6일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때 남아공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윤태민 씨(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고신대 의대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 아들과 함께했습니다.

의료선교팀에 함께했던 오경승 병원장은 김구상 교수가 프라미스의 가슴을 검사하는 중에 초음파에서 덩어리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했으며 초음파상으로 악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선교팀에 함께한 간호대 학생들이 프라미스와 같은 또래입니다. 이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팀이 프라미스를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논의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수술 비용을 감당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프라미스를 데리고 와서 돌려보내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 용돈 등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아공 조벽교회도 힘을 발휘하고 김구상 교수는 한국에 오면 본인이 수술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프라미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료선교팀에 함께했던 김영대 원목실장은 “우리 교수들은 프라미스가 몸에 지닌 그 정도 크기의 종양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충분히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방종양 제거·재건 수술받아 기쁨 누리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를 왼쪽 가슴에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프라미스가 한국으로 올 때의 느낌입니다.

프라미스는 10월 12일 고신대병원에서 유방내분비외과 김구상 교수의 종양 제거 수술과 성형외과 박진형 교수의 유방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프라미스의 수술 부위가 거의 회복됐습니다. 실밥을 푸는 일만 남았습니다. 프라미스는 10월 27일경 남아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김구상 교수는 프라미스의 수술이 잘 되었으며, 이번 수술로 치료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프라미스의 종양 최종 결과가 경계성 엽상종양(암)으로 나왔습니다. CT, MRI, 뼈 검사 결과 전신 전이는 없지만, 재발하거나 전이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번 수술로 치료는 끝났습니다. 프라미스가 현지에서 6개월 후에 초음파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수술을 해온 김구상 교수는 수술에 들어가 프라미스의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그의 피부와 유두를 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할 때 꼭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절제연도 잘 확보하고 피부 손상 없이 수술해야 하는데 저 혼자 수술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함께하셨습니다.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힘이 됐고, 수술 후 해냈다는 기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프라미스는 왼쪽 가슴의 수술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신대병원에서 수술받음으로 10년 동안 가슴과 마음에 짓눌렸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달아나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는 사람마다 ‘너 왼쪽이 왜 더 크냐,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쪽 가슴에 손을 넣어 부풀게도 하고, 옷을 잡아당겨서 양쪽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라미스는 수술받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 있고 유방 전절제로 말미암아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수술 후 양쪽 가슴이 균형이 잡혀 좋고 행복합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에 프라미스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병실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하다

프라미스는 고신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의 사람들,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뻥스 깊이 느꼈습니다. 오경승 병원장과 김영대 원목실장이 프라미스와 같은 병실의 사람들에게 프라미스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프라미스를 잘 섬겼습니다.

“한국 음식, 특히 병원 음식에 적응되지 않아 잘 못 먹거나 굶었습니다. 이때 함께 병실에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서 바나나, 던킨 도넛, 시리얼, 우유, 컵밥 등의 음식들을 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라미스는 하나님이 고신대병원 의료선교팀을 남아공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나를 위해 의료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수술을 받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호자로 함께한 프라미스의 사촌 산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라미스가 수술받고 너무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프라미스는 변화된 자신의 몸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족들에게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온 여정과 수술 등 치료과정, 한국인들의 친절과 상냥함을 자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



병원은 가난하고 병든 이의 친구...



주철인 기자·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병원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곳, 가난하고 병든 친구
곁을 지키겠습니다.”

73년 전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세운 병원의 의
사들이 ‘장기려 정신’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었
다. 이름에 ‘복음’이 붙은 이 병원의 의료진이나 직원은 환자
나 이웃, 지역사회를 향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설립자인 장
기려 박사의 삶과 인술이 병원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음의 의술을 전파하는 기독교 정신
이 주춧돌로 병원을 떠받치고 기둥으로 서 있다. 그 복음의
공간 속에서 의사들은 환자와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을 만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방 최초로 암센터를 열었다. 그래서 ‘부산·울
산·경남 암 치료의 메카’라는 자타의 수식어가 회자된다. 또
‘스마트병원’, ‘섬김의 병원’, ‘해외 의료봉사 병원’ 등은 고신
대 복음병원을 일컫는 다른 말이다.

부산 송도의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세워진 고신대 병
원은 1978년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암센터를 개설해 암 연구와 환자 치료에 결실을 이뤘다.

병원 측은 “암 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지금도 암연구
소에서 지속적인 컨퍼런스와 연구를 통해 암 치료와 정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힘 있게 설명했다.

또 뇌졸중센터는 부산 첫 6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고 최근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전 항목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신경과는 부·울·경 최
초로 3개 베드급 수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낯선 땅에서 사
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소문난 병원이다. 부산에선 하나뿐인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병원 역사만큼 많
은 이름과 수식어를 부여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료진을 양성하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 장비
확충에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물도 수두룩하다. 2011년 부산시 최초 ‘최우수 인
증의료기관’ 획득,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고등급 S등급’
선정,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우수 A등급’ 획득, ‘우수내시경
실 인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등을 이 병



원은 거머쥐었다.

이 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영혼 구
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병원 ▲존경받는 의료인력을 양
성하는 병원 ▲최고의 구제병원이라는 4대 비전을 걸고 ‘나
눔과 섬김’이라는 병원의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

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죽는 날까지 집 한채 없이
청빈한 삶을 살았던 고 장기려 박사의 정신에서 이 병원의 복
음 의술이 나왔다는 것을 많은 시민은 기억한다.

성산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환자가 거저 치료받고 가도록
병원 뒷문을 열어둔 ‘바보의사’였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
처’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웠다. 또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의 기틀이 된
민간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 영세민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텃다.

생전 그가 실천한 나눔의 정신은 그 자체가 선한 지상명령
이 돼 지금까지 병원은 계승하고 있다. 장기려 정신이 이 병
원의 존립 정신인 것이다. 고신대병원 의료봉사팀은 병원 돈
을 써가며 매년 5번 이상 해외 봉사와 단기선교팀을 운영하
고 있다. 국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전개하는 여러 사업도 마
찬가지이다.

봉사단은 지난달 10일 9박 10일 일정으로 남아공에서 의
료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하계휴
가를 낯선 땅에서 땀으로 반납했다.

오경승 병원장과 옥철호 교수, 김희규 교수, 이은미 교수,
윤항구 교수, 김구상 교수 등 많은 의료진이 매년 휴가를 반
납하고 현지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또 이

호섭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교직원도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
로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병원은 추석 연휴와 연말에도
대규모 해외 의료봉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낙
후지역 봉사와 다문화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순회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신대 병원은 의료봉사와 지역민을 섬기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4차 의료융합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진출
을 꿈꾸고 있다.

병원 측은 “2019년 ‘고신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단’을 구
성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웰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병원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다”며 강력
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신대 복음병원은 최근 학교법인인 고신대학교가 어려움
을 겪으면서 당달아 세파를 맞고 있다. 병원의 한 의사는 “장
기려 정신이 녹아 있는 우리 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르다”며,
“모두 장기려 인술을 선언한 의사들인데 세속의 잣대로 스카
우트하려 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에서 큰 연봉액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의하고 있
다는 뜻이다. 어떤 교수는 “심지어 4배나 되는 연봉을 제안
하는 전화를 5번이나 받았다”며, “우리가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돈을 보고 이 일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길을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크리스천으로 학교와 병원을 사랑하며 하나
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로 남
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는 “몇몇 사람이 병원을 흔들고 있지만 복음으
로 세워진 우리 병원의 의사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모여 기
도하고 장기려 정신을 실천하는 데만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
다. 



“응급환자들에게 생명의 손발이 되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심용우** 교수

“신경외과는 특성상 다른 과들보다 응급환자가 많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과 심용우 교수(부산 부전교회)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들이 밤낮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심 교수는 다른 대학에서 펠로우십 과정을 거치고 올 3월 고신대 복음병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금) 심 교수로부터 그의 전문적인 진료 분야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보람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응급환자 많아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 부분을 담당합니다. 각 부분은 세부 과들로 나뉩니다. 심 교수는 뇌혈관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 뇌종양과 관련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의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들은 응급상황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신경외과는 응급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빨리 나와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병원 근처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응급으로 다뤄야 하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원인이 뭘까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출혈은 외상 혹은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은 사고가 나서 생기는 출혈입니다. 뇌경색 발생 시 회복 가능한 치료 시기를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환자뿐만 아니라 뇌출혈 환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경우 위험인자로 알려진 게 많다고 합니다. 고혈압, 비만, 흡연, 나이 등과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에 생활습관과 연관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가 평상시 본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행동 변화가 있다면, 대부분의 위험 인자가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터지기 전까지 모르는 ‘뇌동맥류’

“뇌출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해당 질병이 발생하면 예후(豫後)가 안 좋습니다.”

심 교수가 문헌을 이용한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인 경우 3명 중의 1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중에서 3분의 1은 사망하고, 3분의 1은 마비 또는 의식 불명 등 후유증을 앓고, 3분의 1만 회복된다고 합니다.

“뇌동맥류의 특징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고 삽니다. 요즘 MRI를 통해 검진함으로써 조기 발견돼 치료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동맥류

가 터지면 안좋은 예후를 가집니다.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처럼 뇌출혈은 사람의 생명을 순간적으로 앗아가기에 무서운 질환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자발성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외래에서 교육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경외과 쪽에는 중증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하는 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삶과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합니다. 환자의 생명에 대해 일하면 할수록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늘어날수록 모든 환자에게 애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응급환자에 비교해 부족한 신경외과 의사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는 응급환자가 많다 보니까 개인 생활에 여유가 없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신경외과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지역에서 담당하는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이 많은 것과 비교해 의사가 그만큼 적습니다. 응급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실제 뇌혈관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맥류 파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A 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가 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을 때 ‘동맥결찰술’을 수술할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B 간호사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에 C 병원에서 사망했던 것입니다.

심 교수에 따르면 뇌혈관신경외과 의사 수가 적어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

적 문제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좋아지는 즐거움으로 산다

심 교수는 응급 등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환자가 회복하고 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기도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회복 후 걸어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8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의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수술했습니다. 심 교수는 평소 수술할 때는 긴장하지 않는 데 이 아이를 수술할 때는 많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가수인데 그가 ‘내가 가수 되면 못 볼 수 있다’라며 ‘고맙습니다’라고 사인해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신경외과 환자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서 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등 환자가 회복되는 쾌감이 다른 과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 교수가 힘들어도 일하는 유일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전공의, 펠로우십 과정부터 교수로 재직하면서 설날과 추석 때 집에 간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보람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환자들이 좋아지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환자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으면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다 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면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증환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더라도 환자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대는 제 손이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의 부담감에 초반에는 수술하기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신경외과에서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려 노력했고, 그러한 생각들은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의연해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의 죽음에 대해 다른 중환자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많이 누워 있는 환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죽음으로 어두운 병실이 빛으로 변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절실합니다.

심 교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비롯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관련 분야에 실력을 쌓아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그의 소망입니다. ✚



“평생 주치의로 부인암 환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김은택 교수



“의료선교, 해외의료봉사, 국내 외국인 무료진료 등 의료봉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교로 돌아온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산부인과 김은택 교수(부산 소망침례교회 집사)는 부인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환자들을 회복하는 전인적인 치료에 열정을 쏟으면서 의료봉사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2018년 전문의를 취득해서 부인종양, 부인암을 보는전임의 펠로우십 과정을 거쳐 올 3월 고신대복음병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금) 김 교수로부터 그의 전문적인 진료 분야와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람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여성 장기에만 생기는 암 전반적으로 담당

“산부인과는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는 여성건강의 학과입니다. 초경 전의 어린아이에서부터 폐경 이후 노인 여성까지 전반적인 질환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산부인과는 임신 전과 임신 중 모태 건강의 관리와 분만 및 산후 관리를 담당하는 산과, 부인종양, 내분비 등 3개 분과로 나뉩니다. 김 교수가 주로 다루는 전문분야는 ‘부인종양, 부인암’입니다. 부인암은 부인과 장기인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자궁 체부에 발생하는 자궁체부암과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암으로 질암과 외음부암 등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장기에만 생길 수 있는 암을 전반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암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 양성 질환인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분자면역학적’ 분석으로 개인 정밀 치료

“그동안 산부인과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왔습니다. 단순 수술적 치료에서 지금은 진단검사의학과와 협업으로 ‘분자면역학적’ 분석을 통해 개개인화 된 치료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난소암 환자에게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변이가 있다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변이의 위치에 따라 개개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검사법이 없었기에 단순히 수술하고 초음파 CT를 통해서 병이 악화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단순 접근법에 머물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에도 정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미국은 2, 30년 전부터 분자면역학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정밀 진단의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신대복음병원과 부산지역의 대학병원이 이에 발맞춰 따라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관련된 장기는 크게 자궁, 난소, 난관입니다. 이전에는 90% 이상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복강경 수술이 시작돼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시대가 열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로봇팔을 이용한 로봇수술이 도입돼 고신대복음병원 산부인과도 로봇수술을 통한 각종 부인암과 부인질환에 대해 로봇수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산부인과 로봇수술팀의 일원으로 진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의 질환에 접근이 장점

“제 환자는 전부 여성입니다. 인턴, 전공의 과정 이후로 여성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 환자를 보는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 산부인과 환자를 10년간 봐온 입장에서 그가 모르는 여성의 질환에 접근하고 치료함으로써

환자들과 상담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감해주는 측면에서 더 좋아함에 따라 오히려 남성으로서 여성의 질환에 접근하는 게 장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산부인과 교과서가 ‘노박의 산부인과학’(Novak’s Gynecology)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과서는 의료발전에 따라 5년마다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내용에 담기지 못할 정도의 양이 논문으로 쏟아지고 학회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진료 이외에도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학회를 통해서 습득하고 리뷰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하지만 재미있어 시작한 거라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본과 4년 졸업 후 1년 인턴 과정 중에 2~4주간 모든 과의 진료를 병행하면서 산부인과를 선택했습니다. 여성 환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산부인과 인턴 과정에서 산부인과 일이 잘 맞았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형성이 잘 됐습니다.

전인적 치료 개념으로 환자 돌보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의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양성 질환의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집

니다. 제가 하는 수술을 통해 환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한 여성이 심한 월경통으로 고신대복음병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으로 분만할 계획이 없고 가족계획도 끝난 여성입니다. 이에 김 교수는 자궁적출술 수술을 했습니다. 로봇수술을 통해 최소침습으로 회복이 빠른 수술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수술 후 이틀 만에 완벽하게 회복되어 김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부 진료 내용을 배우는 전임의 과정에서 치료하던 환자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도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임의 2년 차 때 복통을 호소하고 복수가 찬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CT와 MRI를 찍은 결과 난소암이 의심됐습니다. 이 경우 선임 전문의 교수들이 진료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가 김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함에 따라 다른 교수들과 상의 후 그가 수술을 맡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속 항암치료와 유지 치료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받으며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에 세부분과를 선택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인암을 보는 부인종양 전문의는 평생 환자 개념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부인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최신 학술적 지견으로 가장 적절한 수술과 그에 따른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김 교수가 평생 진료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과적 질환이 생기더라도 암환자에 접근하는 내과적 치료가 이뤄져야 하기에 평생 주치의가 되는 개념입니다. 김 교수는 폐경 전후와 나이에 따른 전인적인 치료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더 이상으로 수술적 치료와 적극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항

암에 따른 통증이나 부작용과 관련된 ‘완화치료’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치료 개념의 일환입니다.

“저도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암성 통증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런 통증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것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습니다. ‘완화치료’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과에 공통된 분야 중의 하나로, 완화치료 학회에서 효과적인 통증 치료 경험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신비 누리

김 교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의 오묘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게 유전자입니다. 2013년부터 미국이나 전 세계 유전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암 분야에서는 부인과 암인 자궁내막암의 유전자 지도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자를 검사해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자궁내 막암에 걸릴 확률이 몇 % 인지 나옵니다. 난소암 환자에게 변이가 있으면 평생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교할 때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브라카 변이가 있는 환자가 난소암 진단을 받으면 브라카 변이가 없는 환자보다 치료 효과와 예후(豫後)가 더 좋습니다. 이에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산부인과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노인 여성들까지 다 봅니다. 산부인과가 전체 영역을 다 진료할 수 있기에 개발도상국, 선교지 국가 등에서 전공을 살려 도움이 되는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Focu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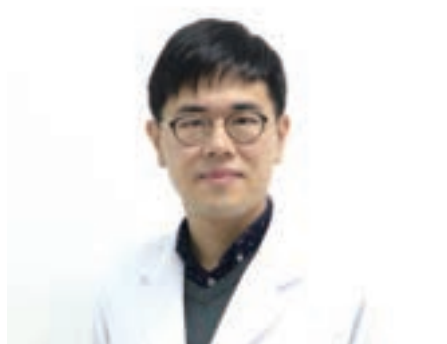
싱가포르, 홍콩 등 바이오헬스케어 회사와 재생치료 관련 협약 체결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웰니스 축제인 제15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BIMTC)이 9월 1일과 2일 벡스코 전시장에 서 개최됐다. 국제의료관광 행사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신대병원 자체 시스템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등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신대병원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해 병원들과는 재생치료에 관한 협약을 진행했으며, 몽골국립 트라우마센터 갈바드락 병원장과는 의사연수와 교류에 대한 협약을, GE베트남, 러시아 5Avenue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바이어들과는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다. 고신대병원은 이번 행사 기간 중 7개국 10개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웰니스, 재생치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3.09.04.]

가정의학과 강지훈 교수 등 5명 일차의료학술상 수상



대한가정의학회회는 제9회 일차의료학술상 수상자로 고신대병원 강지훈 교수 등 5명을 선정했다. 연구 부문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파킨슨병 사이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추적 연구를 한 강지훈 고신대병원 의대 교수를 비롯하여 문한빛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전해진 이화여대 의대 교수, 박주현 고려대 의대 교수 등 4명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는 백재욱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됐다. 일차의료학술상은 한독과 대한가정의학회가 2015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해마다 일차의료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쌓은 의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인 9월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악연탑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

[2023.09.18.]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철 교수, 해양경찰 보건관리 공로 인정받아 해수부장관 표창



고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철 교수가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해양경찰청장비창 안교진 창장은 표창장을 대신 수여하면서 “그동안 해양경찰청장비창의 보건관리에 힘써 주신 오현철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고신대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비창에서 소속 해양경찰 및 정비창 직원들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소재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부산시민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오현철 교수는 해양경찰청장비창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강연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3.09.18.]

Focus View

지방에서 처음으로 로봇유방암수술 100례 돌파 쾌거

-2년 10개월만에 달성한 쾌거, 서울지역 대형병원보다 빨라



유방외과 김구상·정성의, 성형외과 박진형·이형석·김윤수 교수팀이 지방에서는 최초로 로봇 유방암수술 집도 100례를 돌파했다. 김구상·정성의 교수팀은 로봇을 이용한 유두 보존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이 끝나는 동시에 박진형·이형석·김윤수 교수팀이 유방 재건술을 시행했다. 2020년 11월 30일 로봇유방암수술을 처음 시행한 후 만 2년 10개월여 만에 거둔 100례 성과다. 로봇유방암수술 100례 돌파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다빈치Xi장비를 이용, 기존 절개수술에 비해 흉터가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다. 회복속도 역시 확연하게 달라 환자들의 호응이 좋다. 최근 로봇 유방 수술은 BRCA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해 예방적 유방수술을 받는 여성이나, 상피내암이나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 중 즉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3.09.21.]

중국 하북공정대학부속병원과 의학교류협력 MOU 체결

-코로나 펜데믹으로 단절된 중국과의 교류 다시 있다



고신대병원은 9월 27일 오전 부산 서구청 대강당에서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과 의학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은 1970년에 개원한 병원으로, 중국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허베이성 소속 성급의료기관이다. 1100병상의 규모이나 현재 2300병상으로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첨단의료장비까지 갖춘 병원이다. 이번 협약식은 평소 고신대병원과 친분이 있던 중한과학기술교육문화협회 천잉 회장의 소개로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 관계자들이 고신대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를 희망하여 성사되었다. 하북공정대학 부속병원 국가급 중점 프로젝트인 중의학 피부과 병원을 준비하며 피부과, 성형외과 의료진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9.27.]

시민건강박람회에서 3D 보행분석, 패치형 심장검사 등 '최신 스마트 융합의료 체험부스 선보인다'



고신대병원이 10월 13일부터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메디부산 2023 시민건강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와 함께 관람객들이 스마트헬스케어를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산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고신대병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대표 의료기관 9곳, 부산지역암센터 등 보건 관련기관 14곳으로 총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고신대병원은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3D 보행분석, 패치형 심장 검사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개막식 당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사업을 수행중인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과거 시민건강박람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초음파 검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고신대병원 유헬스케어센터에서 선보일 검사들은 태블릿,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융합의학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1.]

Focus View

세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간내과 병동 510병동 전환으로 환자중심 의뢰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기대



고신대병원은 16일 병원 5동 10층 510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고신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개소는 362병동과 511병동에 이어 세 번째로, 보다 환자중심의 의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간병·진료비의 부담을 덜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우수한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병동이다. 고신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은 신규 개소 병동으로, 최신식 부대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진료 및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여러 전문 분야별 진료 연계가 가능해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다인실로 운영하여 병실로 등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10.17.]

코로나 종식후 첫 감염관리주간 행사 성료,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다채로운 캠페인



고신대병원이 17일부터 장기려기념암센터 중앙로비에서 제14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병원 이용객에게 감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 감염관리 주간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처음 진행한 감염관리 주간행사로 4년 만에 환자참여형의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올해는 병원 로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감람이의 보호구를 찾아라', '손을 비비삼', '휴대폰 표면 위생검사' 등의 캠페인과 감염관리 퀴즈, 인스타그램 포토존 이벤트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캠페인에서는 병원내의 질환뿐 아니라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에서 진드기 등이 매개체가 되는 SFTS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2023.10.18.]

유헬스케어센터, 미래의료연구센터 네트워킹 세미나 동시 개최

-의료진과 개도국 보건의료관계자들에게 미래의학 패러다임 제시해



고신대병원이 10월 20일(금) 스마트헬스케어 세미나 두 개를 동시에 개최하며 스마트헬스 융합의학의 선두주자로서의 광복행보를 이어갔다. 고신대병원 유헬스케어센터가 주최한 스마트케어(돌봄의료)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 네트워킹 세미나가 20일(금) 오후 4시 30분 병원 3동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후 5시에는 송도 윈덤그랜드 호텔 3층 마레홀에서 2023년 미래의료연구센터 개소기념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킹 세미나가 개최됐다. 미래의료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중 대한민국 중점 협력 국가의 고위 보건의료 관계자 35명을 초청하여 고신대병원과 부산의 첨단산업과 미래 의료 산업의 실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도 마련됐다. 오경승 병원장은 "의료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제3세계 개도국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시킴으로 제3세계가 직면하는 의료적 필요를 첨단의료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3.]

Focus View

진료비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만족도 상승

-지난 9일 도입 후 두 달 만에 가시적 성과 드러내



고신대병원이 환자가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진료 후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하지 않아도 결제가 진행되는 서비스인 일명 '하이패스 시스템'을 시행한지 두 달 동안 환자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하이패스 시스템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하고 진찰, 검사 등 진료를 받은 후 당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한 번에 후불로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병원관계자는 "환자는 수납을 위해 돌아다녀야하는 불편이 없고, 병원은 환불이나 부도율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병원에서는 모바일 입원 수속 결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입원병실 배정 시 환자가 입원 수속 창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수납 대기시간과 창구 방문 횟수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023.10.24.]

몽골 도르노드주와 보건의료, Medical ICT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란바토르 지역이외에 주요 자치주와 협력으로 메디컬 ICT기술 몽골 전역에 전파 기대



고신대병원이 26일 오전 10시 장기려기념 암센터 제 1회의실에서 몽골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와 보건의료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경승 병원장과 칠하 어요나 도르노드주 보건국장 및 관계자, 펜데브 델진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신대병원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뿐 아니라 몽골 두 곳의 주요 자치주와 해외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펜데브 델진 도르노드 메디컬 센터장은 "고신대병원이 몽골에 선보인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진료 시스템을 몽골 제1병원, 그린병원 등에서 직접 보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르노드주에도 도입을 희망 한다."고 말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보건의료 교류로 몽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팬데믹 이후 첫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의료관광 설명회 열어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카자흐스탄과의 의학교류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재시동을 걸었다. 10월 31일(화) 카자흐스탄 알마티 웨라인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알마티 현지 병원관계자 의료관광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알마티 TV 방송국에서도 현장을 취재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서구 의료관광 특구를 유치한 부산 서구의 공한수 구청장이 동행해 자리를 빛냈다. 공구청장은 "서구 의료특구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중앙아시아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이 우리 서구 특구의 한축을 맡고 있는 고신대병원과 교류 재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카자흐스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직항로 개설과 같은 사안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신대병원은 설명회에서 카자흐스탄 최대 의료관광 사업체인 알마티 관광산업 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했으며 알마티 보건국, 고려인 협회와 50여개의 전문 여행사들과도 부산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2023.11.02.]

Focus View

마취과 서승보 전공의, 전국 전공의 수련평가시험에서 1년차 중 전국 1위 차지해



마취통증의학과 서승보 전공의가 2023년 10월 21일 2023년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주최한 전공의수련평가시험에서 1년차 전공의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서 전공의는 전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1년차 206명 중에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김두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국의 쟁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병원의 경쟁력을 알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서승보 전공의는 “분야별 지도교수님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에 감사를 드린다며, 마취통증의학 분야에서 좋은 의료인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지방 대학병원의 전공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쾌거”라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23.11.10.]

제 2회 서구의료관광 축제에서 다양한 융합의료 체험부스 선봬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양일간 부산 송도해수욕장 오션파크에서 벌어진 '제 2회 서구 의료관광축제'에 참가하여 홍보부스와 함께 관람객들이 스마트헬스케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산시 서구가 의료관광 특구지정 2주년을 기념하여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고신대병원을 비롯한 3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이 공동 주최하여 전국 유일의 서구의료관광 특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지역민들에게 선보였다. 고신대병원은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건강증진의 기회를 갖고, 또 많은 외국관광객이 이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의 융합형 체험을 경험하길 바라며, 양일에 걸쳐 3D 보행분석, 패치형 심장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제 2회 서구 의료관광축제에 고신대병원은 홍보부스 운영 뿐 아니라 알찬 강의 프로그램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10일(금) 오후에는 옥철호 소장이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해양치유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11일(토)에는 알레르기 내과 김희규 교수가 행사 특설무대에서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023.11.14.]

김부경 교수 부산시의사회 시민보건의학연구상 수상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지난 11월 18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과 펄룸에서 '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학술포럼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42회 의학대상의 학술상과 사회봉사상 및 제55차 시민보건의학연구상, 우수 전공의 및 장학생 시상 이 잇따라 진행됐다. 시민보건의학연구상은 '중증 고도비만 환자의 골절 예방을 통한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 모색 연구'라는 논문으로 김부경(고신대 의대 내과학교실) 부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전공의에는 정장환(고신대병원 피부과) 전공의가 뽑혔다.

[2023.11.20.]

Focus View

제 21회 질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 성료



11월 22일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1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02년부터 해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는 올해 27개 참여 팀 중 우수 4개 팀을 선정하여 이날 구연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영상의학실 조지영 간호사의 '영상검사 전 환자평가를 통한 환자안전 강화 활동' 금상은 352병동 손순진 간호사의 '수술환자 섬망 예방 및 발생시 간호 중재 표준화'가 차지했다. 이날 발표한 4팀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연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CP(Critical Pathway, 표준진료지침) 우수상으로 '총수절제술 CP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응급외과 김영식 교수가 수상했으며, CP 우수관리 진료과로 비뇨의학과, 신경외과가 선정됐다.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병원 중앙로비에서 진행된 Q활동 포스터 전시에서는 간호부 외래, 503병동, 영양실, 원무1과, 의용공학과 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 외래팀이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11.22]

'교수진 7명 참여' 김해동광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의료봉사 실시



11월 18일(토) 김해 동광초등학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활동은 고신대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박경란 교수, 산부인과 김은택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정민영 교수, 치과 김희진, 강은숙 등 7명의 교수진과 의료지원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김해동광초에 재학중인 약 50여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동광초 이현님 교장도 현장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고신대병원 은 10년 이상 김해지역 다문화 가정들에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환)과 다문화 학생 및 가족 의료·보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식에서 논의한 바 있는 '실효성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이 이번 봉사활동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를 담당하는 이정현 교수가 소아 발육상담을, 소아 아토피 피부질환을 담당하는 정민영 교수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상담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23.11.27]

피부과 장민수 교수, 대한광의학회 회장 취임



피부과 장민수 교수가 대한광의학회 (Korean Society for Photomedicine)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교수는 11월 25일(토) ~ 26일(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 32차 대한광의학회 학술포럼에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부터 4년이다. 대한광의학회는 광발암, 광치료, 광반응, 광검사, 광노화, 광피부질환, 광진단, 광역동요법, 광생물학 등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1982년 설립됐다.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LED, 레이저 등 빛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가들과 함께 광의학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장교수는 고신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방문교수, 대한광의학회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부울경지부회 평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장민수 교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광의학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취임 소감을 전했다.

[2023.11.28]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12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김윤아		●		●		●		●		●	간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홍통, 호흡곤란(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혈관질환, 심부전, 고혈압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배수현										●	심장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990-6102	권수경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			●	●	●			●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암
	박태훈	●			●						●	갑상선,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	●	●	●	●	●	●	●	●	●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해외연수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컬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지원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병화										●	신장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체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두경부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김주덕	해외연수										심폐마취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욱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	●						●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홍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천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윤수			●	●					●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정형외과 990-6130	권영호	●					●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소학			●				●				근골격계 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임준현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12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자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정신건강클리닉
	이윤나											우울증, 산후 우울증, 양극성장애(조울증), 불안장애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부임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부임암, 내시경수술, 조산
	오영림											부임질환, 산과
	윤희구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태경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부임질환, 부임 종양, 부임암, 부임암 유전상담,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부임암 분과전문)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대사비만수술
두경부, 갑상선 내분비외과 990-6113	이지은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김구상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양송이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최진혁											유방암, 유방 양성 질환, 중앙성형클리닉
	정성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 양성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대장,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illegible]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달, 신생아 황달, 저체중 출생아, 저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변출인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혹(아종), 영유아건강권진, 예방접종)
	이정현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갈증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규민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국내연수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신경외과 990-6124	조혁래											뇌종양, 두개저용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뇌혈관 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피부과 990-6146	장민수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서기석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권도익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레이저/색소, 켈로이드/흉터
일반내과 990-6359	손종원											일반내과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해외연수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진 솔											감염내과 일반진료
치과 990-5150	김희진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감염,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치주과 일반진료
직업환경의학과 990-6742	김정원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 · 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당신의 첫눈이고 싶습니다.

- 시인 이채

간절한 내 마음이
당신의 첫눈으로 내릴 수 있다면
있 다 떠나보낸
빈 나목으로 서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처음이란 이유로
당신의 마지막까지 젖어들 수는 없을까요
당신에게 이르는 길에
처음으로 피는 눈꽃이고 싶습니다.

신비스럽도록 맑고 고운
당신의 첫눈이 되어
하얗게 나를 비우고
당신의 추운 겨울부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꽃 피고 새 지저귀는
하늘 푸르른 날에 당신의 맑은 샘터로 남아

다시 첫눈이 올 때까지
목마른 당신이라면
마셔도 마셔도 마르지 않는
한 방울을 그리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빈부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사랑은 베풀수록 커진다는 **진리**

이 '믿음'과 '진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